

# Hellenic and Christian Studies

(A. H. Armstrong, Variorum Great Britain, 1990)

전광식

## I.

Arthur Hilary Armstrong 교수는 신플라톤주의(Neo-Platonism)와 고대 기독교사상 분야에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교수로 이 분야의 연구에 권위있는 논문을 많이 발표했다. *An Introduction to the Ancient Philosophy* (1948년호판)이나 *Plotinus* (1940년호판) 그리고 Loeb Library의 Classical Studies Series에서의 *Plotinus: Enneades* 같은 기념비적 작품외에 그간 여러 학술지에 발표했던 논문들을 묶어 두 권의 책을 내었는데 그 판권이 1979년도에 Variorum 출판사에서 나온 *Plotinian and Christian Studies*이고, 다른 한 권이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본서이다. 앞의 책이 저자가 1936년에서 1979년 그의 70회 생신에 이르기까지 발표했던 논문들중에 주요한 것을 수록한 것임에 비해, 이 *Hellenic and Christian Studies*는

1979년부터 1989년의 그의 80회 생신에 이르기까지 발표했던 논문들의 모음집이다.

■

1988년 이래 나는 저자인 Armstrong 교수와 친분을 맺어오고 있다. 88년 가을 영국의 왕립철학협회(Royal Institute of Philosophy) 연차 세미나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로 해후한 이래 우리는 두 번의 학술적 대화를 위해 한남과 수차례의 서신교환을 통하여 후기고대철학, 주로 Plotin과 Proklos 같은 신플라톤주의자들의 사상에 대해 많은 내용을 주고 받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나는 듣고 배우는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나의 학문적 스승이었다고 하겠다. 나의 유럽 유학 시절에 나 개인의 학문성에 관심을 보인 이른은 München 대학의 Werner Beierwaltes 교수, Oxford 대학의 John Ackrill 교수와 함께 이 Armstrong 교수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이 가운데서 특히 나의 후기고대철학에 관한 지식에 많은 가르침을 주었고 부족한 나를 동료학자로 예우해 주었다. 88년 그의 초청으로 영국의 중심부 지역에 위치한 Ludlow라는 중세 소읍(小邑)의 minia라는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그와 함께 무려 세 시간 반을 대화하며 후기고대철학에 대한 그의 심오한 지식을 듣게 되었다. 우리는 그때 종교와 철학과 같은 광범위한 주제도, 또 Plotin에 있어서의 Hypostase, 그리고 'agnostos theos'와 같은 구체적인 주제도 함께 논의했다. 연전에 Armstrong 교수는 내게 본서를 보내면서 Variorum 출판사의 요청도 있고 하므로 한국에서 이 책에 관한 서평이 나왔으면 하고 바램을 얘기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이 특집인 이번 「통합연구」에 본서에 대한 서평을 간략히 적게 된 것이다.

■

*Plotinian and Christian Studies*에서 Armstrong은 Plotin사상과 교부들의 사상을 심

도있게 논의하면서 상호관계적으로는 Plotin의 사상이 어떻게 기독교 교부들의 작품과 사상 속에 수용되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이것은 그가 왕성한 학문활동을 하던 청장년 시절의 그의 학문적 관심이 거의 Plotin 한 철학자에게 머물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것에 비해 인생과 학문의 노숙기에 접어들면서 그의 관심은 보다 넓게 전개되었음이 이 *Hellenic and Christian Studies*에 잘 나타난다. 두 작품 다 'Christian Studies'이지만 앞의 것은 Plotin에, 뒤의 것은 Hellenic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제목의 변화는 저자 자신이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저자의 관심의 변화가 요인이 된다.

첫째는 지금까지 저자의 주된 관심은 Plotin에게 있어 왔지만 이제는 그를 단독으로 연구하는데서 벗어나 그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에 있어서 Plotin과 그의 사상이 차지하는 위치를 조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본대 있다. 즉 Plotin을 단순히 후기고대철학의 세계 속에서만 보지 않고 당시의 종교예식이나 종교사상등 헬라문화의 전체적 세계 속에서 불려고 한 것이다. Plotin을 후기 고대의 종교적 측면에서 본 Armstrong의 이러한 시도는 정당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Heinrich Dorrie같은 여러 사상가들의 평가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후 2세기에서 5세기에 이르는 시기는 소위 '철학의 종교적 시기'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저자는 과거보다 더욱 더 후기고대에서의 헬레니즘(Hellenism)과 기독교간의 논쟁과 대립에 학문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당시 차츰 황혼기를 맞아가고 있던 헬레니즘과 여명기를 맞이하던 기독교간의 팽팽한 논쟁은 이 시대를 연구하는 기독교회사가나 고대철학 연구자들에게 매력을 준 주제였다. 저자는 이 책에 담긴 여러 논문에서 한편으로는 기독교사상과 헬라철학간의 대비전을 다루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호 유사점과 영향을 주고 받은 점을 취급하기도 한다. 이 양 진영의 비교 연구에서 저자는 비교적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고 객관적 시각에서 불려고 한다.

#### N.

이 논문집은 *Some Advantages of Polytheism*에서 *On Not Knowing too Much About God*에 이르기까지 모두 15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알파벳순이나 발표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철학적 주제에서 시작하여 비교적 종교적 주제로 전개되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전체 논문들은 저자 자신의 말처럼 두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첫 그룹은 오로지 Hellenism에 대한 연구에, 둘째 그룹은 Hellenism과 기독교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바쳐지고 있다. 그러나 수록된 논문이 여러 학술지에 발표된 것으로 제목과 내용이 유사하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겹치는 곳이 종종 있다. I번에서 VI번까지는 Hellenism의 철학 내지 종교사상을 VII번에서 XV번까지는 Hellenism과 기독교간의 비교에 바쳐진 논문들이다. 수록된 논문은 주로 고대기독교나 신플라톤주의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Ascona의 Eranos회의에서 발표된 것이 4편으로 제일 많다. 그밖에 '교부학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tristic Studies)'나 Eriugena나 Plotin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모든 논문은 그 성격상 '무엇에 관해서' 쓴 논문이 있고 '무엇'을 쓴 논문이 있는데 후기고대철학과 기독교 사상을 다룬 본서는 아무래도 역사적 연구, 즉 '무엇에 관한'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다. '무엇'을 쓴 논문은 4편의 논문이 있는데, 곧 'Some Advantages of Polytheism', 'Negative Theology, Myth and Incarnation', 'Philosophy, Theology and Interpretation' 그리고 'On Not Knowing too Much About God'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문들에서도 저자는 '무엇'에 관한 진술에서 주로 후기고대철학적인 사상을 종종 도입한다. 미리 짚어 두어야 할 것은 저자가 '무엇'을 쓴 논문, 말하자면 역사적 연구가 아니라 자기사상을 얘기할 때 우리 복음주의 독자들의 시각에서는 수긍할 수 없는 점이 많이 있다. 그것은 저자가 최근에 변하여 바른 신앙을 갖기 전까지는 혼합주의적인 사상을 지녔기 때문이다. 저자의 종교관 등에 대한 논의는 차후로 미루도록 하고 여기에 수록된 대부분의 논문은 '변화'되지 않은 저자의 사상이 담긴 것임을 미리 밝히면서 세부적인 분석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 V.

Armstrong이 기독교적 유신론에서 가장 떨어져 있을 때 쓴 논문 중 하나가 첫 논문인 ‘Some Advantages of Polytheism’이다. 여기에서 그는 우선 현대 사회에서 통용되고 주도적인 신관은 일신론(monotheism)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제 매우 복잡다단하고 또 역사에 대한 지식의 증가가 팔목하게 일어나서 인간과 인간사 밖에도 신적 현존이 있고 또 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현현(epiphanies)이 있음을 알게 되어 이제는 다신론(polytheism)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후기고대철학에서의 소위 일신론적 다신론에 귀기울여 보고자 한다.

두번째 논문인 ‘Iamblichus and Egypt’는 Iamblichus의 마법술(theurgy)이 Platon이나 Plotin 사상과의 관련성보다 동방(oriental)의 사상에 그리고 동방의 사상가운데서도 일반적으로는 이 문제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Oracula Chaldaica(갈대아 신학)보다는 애굽의 신비사상에 연결됨을 부각시키고 있다. Iamblichus가 자기의 *De Mysteriorum*에서 사제인 Abammon의 ‘Les Mystères d’Egypte’에서 나온 것이었다. Armstrong은 Iamblichus가 이런 애굽의 마법술을 신플라톤주의식으로 해석 수납하였고, 또 Plotinus나 Porphyry의 지성적이고 정신적인 종교와는 다른 마법적 종교를 제시했다고 본다. 이 두 종교는 공존해야 하는 법이지만 Iamblichus에게서는 신에 이르는 길에는 철학의 길보다 마법의 길이 더 고차원의 것임을 밝힌다.

세번째 논문인 ‘The Negative Theology of Novs in Later Neoplatonism’은 저자가 Heinrich Dörrie의 기념 논집에 낸 논문으로 Plotinus와 그의 후예들의 부정신학이 ‘Dionysius’와 그 이후 Cusanus에 이르기까지의 기독교사상가들에 영향을 준 점을 살피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그는 Porphyry의 형이상학에 대한 P.Hodot의 재발견, K. Wurm과 A.C.Lloyd 등의 연구 결과들을 평가하고 있다.

네번째 논문인 ‘The Divine Enhancement of Earthly Beauties: the Hellenic

and Platonic Tradition'은 저자의 다른 논문인 'Beauty and the Discovery of Divinity in the Thought of Plotinus' (*Plotinian and Christian Studies* XIX) 등과 함께 회랍철학의 미학적 형이상학을 다룬 작품이다.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저자는 Homer와 Sappho같은 시인들, Aeschylus와 Sophocles같은 희곡가들의 작품을 다루면서 이들의 사상에는 삼라만상 속에 신적인 것이 편만해 있고, 그런 신적인 것이 현현한 것에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놓여 있다는 사상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고대회랍인들이 신적인 아름다움은 인간을 가끔 광기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논문의 중반부에서 유럽인들의 사고형성에 큰 영향을 준 사유와 감성, 그리고 상상의 방식에 관해 논의한 후 후반부에서 Platon의 미학을 Eros론을 중심으로 다루고 Platon의 미학을 발전시킨 Plotinus를 취급하고 있다. Armstrong은 앞서 언급한 자기의 다른 논문에서와 같은 논지로 Plotinus야말로 Platon의 사상을 가장 잘 이해한 자로서 그는 지상의 아름다움 속에 신적인 아름다움이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주장한 자였다고 한다.

다섯번째 논문인 'The Hidden and the Open in Hellenic Thought'는 비교적 긴 논문으로 우선은 철학의 고대회랍사상에서, 다음으로는 Platon과 신플라톤주의, 그리고 *Stoa*사상에서 '감춰진(the hidden)'을 찾고있다. 일반적인 회랍사상에서도 사물의 성격에 담겨져 있는 신적인 것과 신비적인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들의 종교예식에도 마술적인 것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당시에 공적이고 개방된(open) 활동이던 철학에도 비의적 요소(esoteric elements)가 있어 그것을 Orphic 종파와 Pythagoras 학파의 비의적 예식에서, Platon과 그의 Academy의 사상에서, 또 Ammonius와 그의 제자인 Plotin들에게서 (Armstrong은 이런 분야에 관한 지식을 T.Szlezak의 연구에 빚지고 있다) 그리고 후기 신플라톤주의 사상에서 (그는 J.Trouillard의 연구를 도입한다) 추적해 보고 있다.

여섯번째 논문인 'Platonic Mirrors'는 저자가 지적인 바대로 Platon사상의 중심주제인 현상계의 신적 세계에 대한 반영설을 다루고 있다. 그는 여기서 Platon 사상과 Plotin 사상을 비교적으로 논술하고 있다. Platon은 신적 세계와 현

상계 간의 관계에 대해 분유(分有, methexis)와 모방(mimesis)이란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Plotin과 같은 신플라톤주의에서는 후자의 개념을 더 선호했다고 보았다. 또 Plotin은 이 세계를 Platon처럼 신적이고 영원한 것의 모사라고 보기 보다는 그런 것의 그림자와 반영으로 불려고 했음을 지적한다. 이것이야말로 Plotin의 Platon 사상에 대한 심오한 변형작업(profound transformation)에 있어 출발점이 된다고 보았다.

일곱번째 논문은 ‘Negative Theology, Myth and Incarnation’으로 여기서 Armstrong은 신플라톤주의의 ‘Negative Theology’보다(이것은 그가 이미 1977년의 *Downside Review* vol.95, No.320에서의 ‘Negative Theology’라는 논문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기독교교리의 교의주의(Dogmatism)와 절대주의(absolutism)을 파기하고 성육신 사건을 신화적인(mythical)인 것으로 다루어 불려고 하였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은 신의 비물질성과 초월을 강조한 신플라톤주의자들에게 경악할 만한 내용이었다. Armstrong은 1988년 Royal Institute of Philosophy의 연차 seminar석상에서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왜 후기로 갈수록 신의 초월성을 더욱 더 강조하게 되었는가라는 나의 질문에 그것은 아마 기독교의 성육신 교리에 대한 하나의 반발작용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추정을 했다. 하여튼 고대후기에서 기독교의 incarnation교리를 비판했던 신플라톤주의자처럼 이 후자의 연구에서 인가를 이룬 Armstrong은 성육신교리를 신화적인 것으로 불려고 했다. 서문에서 그는 이 논문을 집필할 때 그 자신 ‘천주교의 강한 적대자’(a deeply dissident Roman Catholic)였음을 회고했다. 말하자면 개신교 자유신학은 성육신교리를 액면 그대로 안 믿는 것이 있어 문제시 되지 않고,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천주교에 자신이 적대적이었다는 것이다.

여덟번째 논문인 ‘The Self-Definition of Christianity in Relation to Later Platonism’은 기독교가 그 초기에 로마제국과 헬라문화권 내에서 자기를 지켜가며 자기 사상을 유지해 간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기독교가 우선은 유대교에 대항하여, 그 다음으로는 후기플라톤주의에 대항하여 자기를 정의하고 자기사상을 보호해 왔다고 한다. 주후 2세기 이래 기독교는 그 교리형성과 윤리

에서 플라톤피타고라스적 전통, 아리스토텔레스주의, 회의주의, 스토아학과, 그리고 에피쿠레스학과등과 때로는 대립하고 또 때로는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저자는 특히 기독교와 후기플라톤주의와의 만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일각에서 시도되고 있는 '중기(middle)' 플라톤주의와 '신(Neo)' 플라톤주의와의 구분을 배척하고 이 시대에서의 플라톤 사상의 발전을 후기플라톤주의란 이름으로 하나의 지속적 전체로 조망해야 한다고 한다.

아홉번째 논문인 'Pagan and Christian Traditionalism in the First Three Centuries A.D.'는 주후 1세기에서 3세기에 이르는 동안에 기독교 공동체와 이교도 공동체가 지켜온 전통이 무엇인지를 살펴 본 것으로 저자는 각 공동체에서 단 하나의(one) 전통적 권위가 수용되어 왔다고 보는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성경을 도전받을 수 없는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교도 공동체 가운데서는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권위가 있었는데 에피쿠로스파에서는 에피쿠로스의 철학이, Stoa학파는 비교적 절충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수적 Stoa학파에서는 학파의 전통적 도그마들이, Aristoteles파는 미약했으나 이를테면 Alexander of Aphrodisias 같은 이에게는 Aristoteles가, Platon학파에게서는 Platon이 유일한 권위로 있었다고 한다. 본고에서는 주로 Platon주의자들을 다루고 있는 저자는 이 시대에는 소위 '절충주의(eclecticism)'라는 것이 있고 중기, 후기플라톤주의(Middle Platonism and in Neoplatonism)의 어떤 형태에는 Aristoteles적인 요소가 군데군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플라톤주의자의 정경(正經)에는 결코 들어가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열번째 논문인 'Philosophy, Theology and Interpretation : the Interpretation of interpreters'은 매우 짧은 논문으로 아홉번째 논문과 성격상 유사한 것인데, 여기서 저자는 Plotinus와 같은 주전 1C의 철학자들이 어떻게 그 이전의 철학 전통을 해석했고, 또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과거 철학 전통에 대한 해석가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난관이 있는데 그 하나로 그들의 소위 '신학'에서 가장 큰 주제인 신을 인간의 사상의 그물과 언어의 체계로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자기들 전통의 고

대 근원의 우월성에 대한 그들의 확신이라고 한다.

열한번째 논문인 ‘Two Views of Freedom : A Christian Objection in Plotinus’에서는 Plotinus의 *Enneads* VI 8[39]7, 11~15에서 나타난 Plotinus의 자유관을 기독교적 자유관과 대비시켜 이 양자가 상호 간에 어떤 대립과 긴장 속에 있었는지를 살펴 보고 있다. Plotinus는 여기서 신의 자유를 주요 주제로 삼고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적 자유관에 대한 대립을 염두에 두고 썼다는 것이다. Armstrong이 파악한 두 가지 자유관은, 첫째는 자기자신이 되어짐(to be oneself)에서 자유의 본질을 찾는 입장과 다음으로는 어떤 선택의 가능성 속에 절대적으로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에서 자유의 의미를 찾는 견지이다. 이 가운데 기독교적 입장과 Plotinus의 입장은 딱 고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Plotinus 입장이 후자를, 기독교의 입장이 전자를 나타낸다고 본다. Plotinus와 대립한 기독교의 자유관에도 Methodius와 Hippolytus가 대표하는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전자는 기독교적 플라톤주의자로 인간자유에 대한 불확정성적 견해를 표방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은 그의 신성, 선함, 지혜에 의해 제한되어진다고 했으며, 후자는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주의적(主意的)인 견해를 나타내었다고 한다.

열두번째 논문인 ‘Dualism Platonic, Gnostic, and Christian’에서 저자는 우선 우주적 이원론(cosmic dualism)의 네 가지 형태를 말하고 있다. 이 네가지는 형태는 우선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우주의 두 가지 원리들이 상호 독립적이고도 연속적으로 병립하는 성격을 지닌 것이다. 둘째는 두번째 원리가 첫번째 원리에서 파생된 것이든지 아니면 그것에 의존하는 경우이다. 전자에서도 그 양자가 본질적으로 대립되거나 영구히 갈등하는 경우와 상호 조화를 이루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뉘질 수 있다. 후자에서도 저자가 ‘dark other(어두운 타자)’로 부르는 두번째 원리가 첫번째 원리에 대립하는 경우와 그것과 조화나 협동을 이루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이다. 제목과 달리 영지주의와 기독교에서의 이원론 논의는 ‘극히 짧게’ 그것도 악의 출처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만 해놓은 저자는 논문의 대부분을 Pythagoras파와 Platon의 이원론에 대해 설명한다.

Pythagoras에게서 두원리가 상호 독립적으로 영속적으로 병존하는 이원론을 본 저자는 Platon에 와서는 수의 이데아인 이상수(Ideal Numbers)가 일자(One)뿐 아니라 무규정적인 이자(Dyad)에서도 나오는 이원론을 간파했다.

열세번째 논문인 'The Way and the Ways : Religious Tolerance and Intolerance in the Fourth Century A.D'에서 저자는 Constantine 황제에 의한 기독교의 국교인정에서 Theodosius 황제 치하에서의 기독교적 불관용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회람종교와 철학에 대해 취한 태도를 살피고 있다. 주후 4C 후반은 고대 종교가 여전히 생생한 전통 속에 내려온 시기였지만, 이런 종교는 기독교처럼 교의학적 신앙의 종교가 아니라, 제식(祭式)의 종교이었다. 기독교에는 후에 이르러 관용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당시의 불관용적 억압의 결과를 회복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기독교회는 공적예배의 유일한 관리인이 되었다고 본다. Armstrong은 Theodosius 황제치하에서의 기독교적 불관용이 결국 오늘날 서구에서의 기독교 및 종교적 신념의 모든 형태들의 쇠락을 가져왔고 상대적으로 전적으로 비종교적이고 비정신적인 유물론의 성장이 가속화 되었다고 진단한다.

열네번째 논문은 'Itineraries in Late Antiquity'로서 저자는 여기에서 후기 고대에서의 영적십자로들(crossroads), 즉 종교 및 종교적 철학의 경향들 간의 상호 만남을 살피고 있다. 이러한 만남에 등장하는 길들로 Armstrong은 크게 세 가지를 드는데 하나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중해와 유럽 각지에서 내려오는 농민종교 및 민중종교, 다음으로는 Athene의 길이라고 불리는 철학사상으로 후기 고대에서의 신플라톤주의, 세번째로는 '예루살렘의 길'이라는 기독교라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저자는 두번째 길과 세번째 길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그에 의하면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신플라톤주의도 실은 일원론적(monotheistic) 체계를 지녔다는 것이다. 주후 2세기 후반과 3세기 초에 가장 강렬했던 아테네와 예루살렘 간의 갈등도 결국 신들 안의, 그리고 신들을 수반한 절대신(God in and with the gods)과 신들이 없는, 그리고 신들을 대항하는 절대신(God without and against the gods)과의 분쟁이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열다섯번째 논문인 'On Not Knowing too Much About God' 역시 후기고대사상사에서 기독교와 신플라톤주의를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저자는 기독교적 사유에서의 교의적 주장에 대립하여 행해진 신플라톤주의의 부정신학과 고대철학의 다른 영향을 취급하고 있다. 저자는 교부시대와 그 이래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신인양성등에 대한 교리구성에 헬라철학이 상당한 영향을 행사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영향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것을 말하는 기독교의 태도에 어떤 수정을 가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즉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결코 많이 알 수 없고, 또 따라서 많이 말할 수도 없음을 얘기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한편에서는 신플라톤주의의 부정신학(via Negativa)내지 상승의 길(the Apophatic way)과 다른 한편에서는 회의주의(Scepticism)나 피론주의(Pyrrhonism)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Aristoteles 직후에 나타난 회의주의는 르네상스 이후의 기독교 사상에, 주후 3세기에 등장한 신플라톤주의의 부정신학은 교부시대와 중세시대의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 VI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이 논문 모음집은 거의 신플라톤주의와 그것의 기독교 사상에 대한 관계에 대한 논문으로 엮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1979년도에 나온 저자의 첫 논문 모음집인 *Plotinian and Christian Studies*이란 제목이 사실 본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겠다. 만일 이 제목이 아니라면 'Neoplatonic and Christian Studies'나 'Hellenistic and Christian Studies'라고 해도 현 제목보다는 내용에 보다 근접한 제목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여튼 본서는 신플라톤주의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Plotin을 일생의 연구과제로 삼은 저자 Armstrong이 자기의 인생 및 학문의 노년기에 그 과제를 축적된 지식과 원숙한 문체로 다시금 펼쳐 보인 것이다. 그의 지식의 해박성은 단순히 신플라톤주의 자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오게 된 사상적 배경인 Platon 및 Aristoteles 사상과 또 그것의 영향사의 영역인 고대 기독교사상까지 뻗어 있다. 아울러 그는 사상들의 이러한 역사적 측면 외에 상호 관계적 측면에도

깊은 이해를 지녀 사상 간의 비교 연구물도 산출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본서에 실린 논문들은 후기고대철학과 기독교 사상에 대한 단순한 소개서가 아니라 전문성을 띤 논문들의 모음집으로 이런 분야에 어느 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이들에게 유용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논문의 주제로 보아서는 본 논문의 후반부를 차지하고 있고 그 성격상으로는 수록된 논문 전체에 걸쳐있는 신플라톤주의와 기독교 사상 간의 비교에서 저자는 가능한한 중립적인 시각에서 상호 간의 영향을 불려고 하지만 평자의 눈에는 그가 기독교 사상을 어느 정도 신플라톤주의의 안경으로 볼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말하자면 그의 입장이 기독교 사상보다는 신플라톤주의에 기울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저자가 교회사가와 신학자가 아니라 신플라톤주의 연구가임으로 고대 교회사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빈약함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후기고대사상사를 보는 저자 자신의 근본적인 시각이기도 하겠다고 여겨진다. 후기고대사상사에 대한 그의 분석과 이해는 근본적으로 당시의 경향과 모습에 충실한 객관적인 태도에 놓이지만 논문 속에 저자 자신이 자기의 입장을 개진한 것을 보면 심증팔구는 '신플라톤적'이고 심증일이는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기독교적'은 복음주의적인 시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저자는 서문에서 'my sympathies are fairly obviously on the Hellenic side'라고 했다. 이 논문들을 쓸 때 저자 자신은 형식적 기독교인이기는 했지만 결코 학문과 사상에 대한 기독교적 내지 기독교 철학적 시각을 지니고 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대로 이 모음집이 완성되고 서문을 쓸 때 그는 비교적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어 있음을 고백한다. "I write this introduction as a worshipping member of the church of my baptism and confirmation, the Church of England." 그러나 그의 기독교적 입장은 과격하지는 않지만 자유주의 신학의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다.

하여튼 이제 그는 'personal change of attitude'를 말하고 신플라톤주의의 식의 잠신(gods)을 믿는게 아니라 (물론 그는 신플라톤주의도 일원론적 체계라고 하지만) 자기의 토로대로 "I believe in God" 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런 변

화는 이미 평자가 88년의 대화 중에 감지했던 것이었다. 끝으로 본서에 수록된 논문을 전체적으로 볼 때 눈길을 끈 것은 저자의 지식이 매우 종합적이고 해박하다는 것이었고, 또 자신의 입장과 학문적 이해의 근원을 얘기할 때 매우 진솔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논문들의 내용을 전개하는 가운데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동료들에게 빚진 것이나, 또는 좋은 연구가 있으면 그들을 밝히는데 조금도 서슴지 않는 것이다. 이를테면 E. R. Dodds, W. Beierwaltes, J. Trouillard, H. Dörrie, P. Hadot, A. C. Lloyd, T. Szlezak, J. Dillon, J. Whittaker, E. P. Meijering, H. D. Saffrey 와 L. G. Westerink 등이다.